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발표

익산시, 혁신성장 이끌 청년중심·특화형일자리 창출

익산시가 2026년까지 바이오 등 혁신성장 산업을 이끌 청년중심·익산형 특화 일자리 창출로 '좋은 일자리 미래도시'로 도약한다.

29일 시는 지역의 산업구조·고용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2026년까지 4년간 바이오산업 집중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직접 일자리 지원 등 128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7,800여원을 투자해 현재 고용률 62%에서 6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 대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함께하는 익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5대 핵심전략으로 △미래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형 일자리창출 △창년이 모여드는 청년 일자리정책 △일자리 서비스 역량 강화 △익산형 지역 경제 안정망 구축 △대상별 일자리 확대 및 지원역량 강화로 정하고 민선8기 공약사항과 적극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성장 산업 및 청년 일자리 육성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안정화와 자립역량 강화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미래산업 대전환을 앞당기고, 적재적소의 일자리로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에 특화된 일자리정책을 펼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인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미래산업과 연계한 기술창업 지원으로 '청년창업 메카'로 도약한다.

“정착할 수 있는 젊은 도시”

익산시, 청년 기술창업 메카 '도약'

익산시가 미래산업과 연계한 기술창업 지원으로 '청년창업 메카'로 도약한다.

시는 29일 지역 기업인 SK E&S 전북 에너지서비스(대표 박경식)와 '민관협력 위드로컬(WITH LOCAL) 청년창업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이번 협약은 익산 청년들에게 지역특화 산업 및 기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연계 창업을 위해 시제품 개발과 창업교육, 특허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본 예산에 지방소멸대응 기금 선정을 통해 확보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는 청년창업자 교육 및 특허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총1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18세~30세의 창업 3년 이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팀을 선발한다.

시제품 개발비 등 최대 4,5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고 SK E&S 전북 에너지서비스의 인프라 지원과 청년 창업가 맞춤형교육 및 특허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내년 사업이 추진되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지 청년들의 인구 유입 및 지역 기업인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와의 동반성장 수요기업 발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올해 협약을 통해 위드로컬 1기 청년 창업가 20명이 배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1기 대표들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익산시와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에 전달했다.

정현을 시장은 "청년 창업가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청년들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젊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왕궁보석테마관광지, 토기해맞아 '눈토&놀토' 핫플

겨울방학 맞아 매주 토요일 야간개장·이벤트 풍성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2023년 겨울방학 맞아 '눈토 & 놀토' 이벤트를 개최하며 새해 가족 연인 친구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올 한해 방문객 10만 여명을 돌파한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서는 1월과 2월 두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눈 오는 토요일' 무료관람부터 야간개장까지 신나는 일들이 가득 펼쳐진다.

보석박물관과 다이노키즈월드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선물 증정, SNS해시태그 등 토요일 이벤트로 참여의 즐거움과 검은 토끼와 보석동물 전시회 등 특별한 볼거리가 더해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눈이 오는 설레임을 담아 '눈 오는 토요일(눈토)'에는 보석박물관

관람 및 다이노키즈월드 무료 이용 이벤트가 진행된다.

'눈토'는 토요일 당일 새로 쌓인 눈이 0.1cm이상 기록된 경우와 현장 매표 발권 시점부터 눈이 오면 해당된다. 다이노키즈월드 온라인 예매 시에는 체험시간을 기준으로 눈이 오는 시점부터 해당된다.

적설량 기준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www.rainfall.or.kr) 홈페이지에서 왕궁면을 기준(09:00 정각), 기상정보(적설량 정보)기록에 따른다. 다만, 관람 및 체험하고 있는 공간에 눈이 오는 경우는 무료체험에서 제외된다.

토요일 방문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다이노키즈월드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매 회차별 발권 티켓 일련번호로 1명씩 추첨해 '마퐁이 인형', '스마트폰 그림책', '보석볼펜' 중 랜덤으로 선

물을 증정한다.

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다이노키즈월드 #보석박물관 #익산여행)한 다이노키즈월드 참여 사진을 현장에서 보여주면 매표소 직원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에 참여의 재미를 높인다.

아울러 토요일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도록 다이노키즈월드 놀토 야간개장을 2월까지 진행한다. 기존 오후 5시까지 운영을 저녁 8시까지(매표 마감 7시)로 연장해 3회 증회 운영한다.

또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사랑의 마차 언덕, 열매나무, 영원한 빛과 장미정원 등 칠선녀 관광 앞 야간관광으로 불링불링한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편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라이브 스케치 기술 등을 활용한 상호작용형 실감콘텐츠가 운영 중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대, 신입생 무료 통학버스 전격 실시

국립군산대학교가 신입생 및 재학생 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며, 학생중심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신입생들이 학생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및 익산, 김제, 서천 등지에서 통학하는 신입생 대상 통학버스 전면 무료 운영을 시행한다.

입학 전 특별장학금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어서,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추가로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학습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전국 최상위권인데, 이번엔 실시되는 추가 장학금으로 군산대학교의 장학제도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군산대학교의 장학금 혜택 평균 비율은 88.8%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국내의 학생활동들이 재개 및 신규 운영될 예정이어서, 올해 신입생들은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023학년도 추진 예정인 학생활동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생해외 혁신기행 프로그램'과 '글로벌 해외봉사단' 등이다.

'학생 해외 혁신프로그램'은 미국 푸에블로 커뮤니티대학 등 해외 자매 대학과 연계해 현장교육학습 및 실습을 실시하고, 재학생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롭게 재개되는 '글로벌 해외봉사활동'은 자기계발과 인성,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군산시는 29일 6급 이상 간부공무원 380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표 준모형'을 배포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군산시 평가도 이 모델을 따랐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통 4급이나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에 비해 군산시에서 6급 중간관리자부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것

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선8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청렴은 위에서 아래로'라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확대 시행됐다.

조사는 지난 7월~10월 8일간 실시했으며 평가 대상인 간부공무원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상급·동급·하급자에게 간부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 등 청렴성 관련 19개 항목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에 관한 설문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연속 6회 선정

군산시는 29일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별 결과 A그룹 최우수(2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은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1,500억원 이상), B그룹(600억원 이상), C그룹(6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 도내 14개 시·군에 징수율 신장, 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에서 선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5회 연속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또, 2022년 하반기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6회 연속 우수시에 선발되는 성과를 올렸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평가 우수 선정

익산시가 기후변화 위기시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구축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친환경녹색도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청소행정 추진,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한 2022년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추진 실적과 자원순환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결과를 평가해 우수기관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시는 폐현수막으로 수거매체, 장비부품 제작을 통한 순환자원 시책 추진 및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 확대 등의 평가 지표에서 타시군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전국에 벤치마킹이 되며 자원재활용과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